

4·15총선 민주당 경선 격전지 분석

군공항 이전 최대 이슈

행정경험이나 패기냐

이석형(61) **이용빈(55)**

학력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경력	(전)문재인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합평군수	(전)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전)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공동선거대책위원장
주요 공약	·빛그린산단과 평동산단 활성화 ·군 공항 소음피해 최소화과 이전문제 ·광주송정역 역세권개발	·광주형 일자리를 더좋은 일자리로 ·금호타이어 이전부지 조기 확정추진 ·공항이전 및 송정역세권개발

민형배(58) **박시중(55)**

학력	전남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사회학 박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경력	(전)문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자치발전비서관 (전)민선 5-6기 광산구청장	(전)문대통령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전)서울대학교 삼민투위위원장
주요 공약	·대형 의료복지시설 포함한 어등산개발 투자유치 ·명문고교 이전·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보편적 복지의 혁신적 채널 도입	·기본소득제 도입과 법제화 ·UN민주주의본부 광주 유치 ·4차 산업혁명 속 우리 광산을 교육의 메카로

광산갑

이석형, 다양한 정치 경험
이용빈, 의사 출신 노동자 대변
송정역세권 개발 지역민 관심
후보간 고소·고발...혼탁 우려

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좋은 정치를 하겠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더 큰 꿈을 꾸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면서 "나비축제는 농업과 생태, 문화, 관광이 융복합된 혁신성공 사례이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빛그린산단과 평동산단 활성화, ▲군 공항 소음피해 최소화와 이전문제, ▲광주송정역 역세권개발 ▲광산지역 SOC개발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광산구민의 실수를 챙기는 오광(五光), Big 5 정책 등이다.

의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을 내놓고, 최근 '광주시 노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당 공모사업, 조직감사, 제로페이 캠페인 등으로 전국 지역위원회 최초 중앙당 평가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지역위원회 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직면한 정치환경이 위기이다. 나는 4년전 민주당이 위기일 때 영입된 호남 인재이다. 이번 총선은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며 위기일 때 당을 지켜내 본 사람과 오락가락하던 사람들과의 대결이다"면서 "격이 다른 감각 있는 정치로 대한민국과 광산의 미래100년을 담는 담대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시대정신을 실천한 시민운동가 20년을 함께한 사람, 4년을 절실히 기다린 사람, 광산은 이용빈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더좋은 일자리로 ▲금호타이어 이전부지 조기 확정추진 ▲군공항이전 및 송정역세권개발 ▲지하철2호선 개통계기 역세권개발 및 환경개선 국비지원 사업화 ▲광주시립의료원 설치, 도시농촌차별 시정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 전 군수는 나비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광산갑 지역구에 합병 출신 지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 경험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그는 "정치와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과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 좋은 경제는 크게 부유하지 않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터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차별없이 존중받으며 꿈을 현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을

민형배, 구청장 연임 조직 견제
박시중, '새 인물론' 민심 다져
광주지역 가장 핫한 경선지
신인 가점 있어 박빙 승부 예고

원칙으로 삼겠다. 여의도 안에 갇혀 이익을 다루는 정치가 아닌, 시민의 요청과 주권자의 열망을 여의도에서 관철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정치와 생활정치를 입법과 제도로 결합시키는 참신하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주요공약은 ▲대형 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 어등산개발 투자유치 ▲명문고교 이전·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보편적 복지의 혁신적 채널 도입 ▲지역단위 혁신타운의 중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 ▲신창동 국립연구소 건립 추진 등이다.

박 전 행정관은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민심을 다지고 있고 광산구에 '더 나은 광주연구소'를 설립해 학습과 정책 개발에 몰두하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2017년 대선 때 무려 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돕는 광주지역 '진노 그림'의 핵심으로 대선 참모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빠르게 전직 구청장 조직 등을 흡수하는 등 지역 내 조직을 흡수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은 "서울대학교 삼민투 위원장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쳤고 김대중 선생님의 비서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광주 책임자로 정권교체의 길에 헌신했다. 지역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정책, 예산, 인사 등 폭넓게 지역을 챙겼다"며 "이번 국회의원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름 짓는 분수령이다"고 분석했다.

주요 공약은 ▲기본소득제 도입과 법제화 ▲UN민주주의본부 광주 유치 ▲4차 산업혁명 속 우리 광산을 교육의 메카로 ▲미래를 위한 준비 광산교육환경 개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교통환경개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원당산-풍영정전 연계 청소년 문화·휴(휴)밸리 조성 등이다.

민전 구청장은 "지역, 중앙, 정치,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두루 경험하며 광주에서 성장했다. 그간 쌓아온 경험을 아낌없이 쓰면서 광주의 실질을 챙기겠다. 아울러 일을 하면 할수록 광주와 광산,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판을 짜겠다"면서 "시민 주권자정치와 현장정치를

광산구청장을 연임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민전 구청장은 "민형배 정치브리핑"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청장 재임 시절 복지 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쌓인 조직이 견제한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참여자치21대표,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498억 확정

11만 농가... 오늘부터 지급

전남도가 도내 11만여 벼 재배농가의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498억원을 최종 확정해 26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지 평균 쌀값이 80kg당 18만 9994원으로 집계돼, 정부가 지급단가를 5480원(80kg)으로 고시해 1ha 지급단가가 36만71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남도의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498억원이며, 지난 2018년산 236억원 보다 262억원이 늘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격(21만4000원/80kg)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중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돼 일부에서 쌀값 불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조기 시장격리 등의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지난 2005년부터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 공익직불제로 전환돼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대출 완화

상황 유예·만기연장 이자 지원

상공인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접수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에 이은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신청일 기준)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 중 일부는 전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라남도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확인 후 중소기업은 (재)전남 중소기업진흥원에, 소상공인은 (재)전남 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대구시에 마스크 3만개 추가 지원

광주시에 3만개 긴급 지원

는 광주시에 3만개 긴급 지원했다.

전남도는 품귀현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우선 방역현장과 안전취약지역에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4만개를 긴급 지원한데 이어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시에 마스크 3만개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25일 감염 노출이 많은 약국종사원을 위해 전남약사회에 마스크 2만개를 지원했다.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전남도내 감염이 우려된 긴박한 상황"이라며 "방역물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사전 차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선별진료소(55개소)와 무안공항, 중국인 유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전남의사회에도 마스크 5만6000개를 보냈다. 이어 도내 택시·버스 종사자에게 3만2000개, 전남지방경찰청에 1만개의 마스크를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